# 삼성 반도체·바이오 450조…현대차 전동화·신사업 63조 투자

**주요 그룹 향후 5년 투자 계획 발표**

삼성 '미래 사업' 국내 투자 360조
메모리 첨단기술 선제적 적용
바이오 분야 8만명 신규 채용
현대 전동화·친환경 고도화 16조
내연기관·고객서비스 향상 38조
롯데 바이오·모빌리티 37조
한화 에너지·탄소중립 37.6조

**주요 그룹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나섰다.**

**◇삼성,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450조원 투자…8만명 신규 채용**=삼성은 24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삼성은 반도체 및 바이오와 함께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등 같은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에 향후 5년간 관계사와 함께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이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원 대비 120조원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투자 규모를 30% 이상 늘린 것이다. 총 투자액 450조원 가운데 80%인 360조원은 국내 투자액이다. 지난 5년간 국내 투자액 250조원보다 110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30년간 선도해온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소재·신구조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첨단 극자외선(EUV)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은 고성능·저전력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5G·6G 등 초고속 통신 반도체 등에 필요한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는 차세대 생산 기술을 적용해 3나노 이하 제품을 조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바이오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시밀러(복제약)를 주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8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그룹, 63조원 국내 투자…전동화·신사업에 내연기관까지**=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3사도 이날 오는 2025년까지 3년여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16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는 해당 분야를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승용·버스·트럭 등 수소 신제품 및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이 세부 투자 내용이다.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8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들 3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상품성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도 38조원을 쏟아붓는다. 2025년에도 현대차·기아 전체 판매 가운데 여전히 80% 정도를 내연기관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기아는 내연기관차 제품의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현대모비스는 내연기관차에 적용되는 부품 품질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 및 설비 증설과 생산라인 효율화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생산과 판매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반 시설에 대한 보완 투자도 병행한다.

**◇롯데, 5년간 국내에 37조원 투자…산업생태계 활력**=롯데는 이날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국내 사업에 3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37조원 가운데 41%는 신사업과 건설, 렌탈, 인프라 분야에 투입된다. 바이오 사업이 포함된 헬스앤 웰니스 부문에서는 국내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데 1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올해 실증 비행을 목표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한다. 시설 투자를 통해 연간 충전기 생산량을 1만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롯데렌탈은 8조원 규모의 전기차 24만대를 도입한다.

화학사업군에서는 롯데케미칼이 5년간 수소 사업과 전지 소재 사업에 1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리사이클과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분야에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 100만t을 생산하고, 화학사업군은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과 범용 석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투자와 생산 증설에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롯데벤처스는 2026년까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36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푸드테크와 헬스케어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힌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유통사업군에서는 8조1000억원을 투자, 호텔사업군은 호텔과 면세점 시설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품사업군은 와인과 위스키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대체육, 건강기능식품 등 미래 먹거리 개발 등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화, 미래 산업 분야 국내 20조원 등 총 37조6000억원**=한화그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7조6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2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는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3개 분야에 집중된다.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 4조2000억원, 수소혼소(혼합연소) 기술 상용화, 수전해 양산 설비 투자 등 탄소중립 사업 분야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신소재 제품 개발 등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에 보조를 맞추는 활동도 진행한다.

방산·우주항공 분야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석유화학 부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4조원, 건설 분야 복합개발 사업 확대 및 프리미엄 레저 사업 강화 등에도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밖에 기계·항공·방산, 화학·에너지, 건설·서비스, 금융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연평균 4000여명 안팎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2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종학(왼쪽 5번째) 광산세무서장이 24일 광산세무서에서 광산구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세무서 제공〉

## "의료업 영위 사업자 세무지원·납세자 보호 협력"

### 광산세무서-광산구의사회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는 24일 광산구의사회와 의료업 영위 사업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업 영위 사업자의 세무지원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행정 홍보와 세무 관련 교육 지원 및 협조, 성실신고 안내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세무분야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협약기관 종사자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은 "앞으로도 동업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세금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국세청 적극 세정활동 눈에띄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비대면 온라인 세금교실 등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021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기간'(5월1~31일)을 맞아 점자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비대면 온라인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24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009년부터 지급해온 장려금은 국세청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많은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편리한 신청 안내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시각장애인 연합회 광주·전남·전북지부와 협업해 '장려금 신청 점자안내문'을 제작했고,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안내문 내용을 소리파일로 녹음한 뒤 '소리샘'과 '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 상담을 위한 전담 전화(010-9748-4068)를 마련해 장려금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세금교실도 운영한다.

앞서 광주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소상공인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매달 세번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 열린다.

이판식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으로 복지세정 확산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세금교실 운영을 지속 발전시켜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 | 코스피 | 2605.87 (-41.51) |
| ↓ | 코스닥 | 865.07 (-18.52) |
| ↓ | 금리(국고채 3년) | 2.967 (-0.051) |
| ↑ | 환율(USD) | 1266.20 (+2.10) |

## 대유에이텍, 전기차 전용 시트 사업 잰걸음

자동차 시트 제조 기업인 대유에이텍이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차 전용 시트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대유에이텍은 최근 현대차·기아가 발표한 오는 2030년까지 21조원에 달하는 전기차 투자계획에 발맞춰 전기차 전용 시트 생산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 3월 수주한 기아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MV'의 3열 시트를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대유에이텍 화성시트사업부에 신규 라인을 신설한다. 최초 수주 물량인 연 7만대의 시트를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시트 생산설비를 재정비하고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수주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 7'의 3열 시트 역시 생산 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에 맞춰 현대차 아산공장에 연 4만5000대 수준의 물량을 납품할 예정이다.

대유에이텍은 친환경 전기차에 적합한 맞춤형 인체공학적 시트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 연구도 진행한다.

한편, 전기차 시트 외에도 기존의 내연 차량의 시트도 차질없이 생산하고 있다. 대유에이텍은 광주 시트사업부를 통해 기아 광주 오토랜드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봉고Ⅲ 차종의 시트 전량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화성시트사업부를 통해 기아와 쌍용자동차에도 시트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경형SUV '캐스퍼' 차량의 시트를 납품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이데이터로 자신관리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세 번째)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마이데이터에서 마이 경품을 찾아라' 행사에서 당첨된 고객 21명 가운데 3명을 초청해 경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경기 침체 우려 다시 부각…코스피 '뚝'

### 1.57% 내려 2600선 다시 위협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된 가운데 24일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51포인트(1.57%) 내린 2605.87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44포인트(0.32%) 낮은 2638.94에서 출발한 후 중국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자 이에 연동해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62억원, 281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5825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에 쏟아진 매물을 소화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52포인트(2.10%) 하락한 865.07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04포인트(0.23%) 내린 881.55로 출발해 역시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11억원, 35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90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